

03

공중의 사회적 문제 대처: 내집단 신뢰와 가짜뉴스 공유의 영향력

•정재선*

Debiasing and Lay Informatics (DaLI) Lab, University of Oklahoma 책임연구원

0 | 연구는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사회불신, 가짜뉴스 공유와 내집단 신뢰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공중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와 내집단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불신이 코로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짜뉴스 공유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예방행동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이론적, 실무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 고 일 : 2021년 10월 11일
▶심 사 일 : 2021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16일

주제어 : 사회불신, 내집단 신뢰, 가짜뉴스 공유, 예방행동

* (jaeseonjeong1@gmail.com)

1. 서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가짜뉴스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적,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기사의 형식을 차용한 기만적 정보로서 (Hwang, & Kwon, 2017; Pennycook, Cannon, and Rand, 2018).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가짜뉴스의 확산 현상을 인포데믹¹⁾으로 설명하며 그 위험성에 대해 전염병만큼 위험하고 바이러스보다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포데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혼란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야기하거나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공중보건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WHO, 2020). 특히 가짜뉴스는 편향적이고 잘못된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 평가받기 때문에(Yum & Jeong, 2018)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대중의 해당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유통된다(Jang, McKeever, McKeever, & Kim, 2018). 가짜뉴스의 확산은 정보 과부하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면서 이용가능한 정보도 풍부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통되는 정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조작, 복제, 공유가 쉬워지면서 정보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견해와 이데올로기 등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하거나 의도적이고 비정상적 해석을 통해 정보의 오염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정보의 과부하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오정보, 의도적으로 재가공된 정보가 유통됨으로서 대중은 혼란을 느끼게 되며, 올바른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코로나 19 시대의 인포데믹은 사실상 정보 과부하 시대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현상으로, 공중은 수용자의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보를 생산, 가공, 공유하는 적극적인 정보행동의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은 네트워크 환경과의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신뢰가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을 통해 발전하여 네트워크 자체를 질적, 양적으로 확장시키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는 반면 사회에 대한 불신은 동질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축소시키는 집단 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Uslaner, 2002). 즉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 전파되는 가짜뉴스는 보편적인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 행위가 공중이 속한 집단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의 다양성이 사회적 참여에 다르게 작동될 수 있다.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이 강할수록 탈 개인화 되고 집단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다(Spears, 2017). Sunstein (2011)은 동류 집단안에서 정보에 대한 공유와 지지를 통해 확증을 공고히 하며 집단과 다른 견해는 주류의 의견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 불

1)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유행병(epidemic)의 합성어로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의미한다.

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인은 실체성이 강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진다(Hogg, 2007). 불확실성 정체성이론(Uncertainty-identity theory)은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 개인은 집단 실체성이 강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서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내집단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고 이를 인지하더라도 불확실성과 사회적 소외를 피하려는 경향은 집단 안에서 합의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다(Bikhchandani, Hirshleifer, & Welch, 1992). 이와 관련하여 Bourgois (1995)는 사회자본이 동조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동조압력이 이루어지는 집단 내에서의 집단성 문제는 사회를 편향되게 인식하게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부정적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며 사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년층 집단에서 다른 세대와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 플랫폼을 활용한 커뮤니티션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Jung, 2018). 이러한 현상들은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편향성과 이념적 극단성이 특정 개인과 집단을 적대시하고 증오와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Choi & Youn, 2019). 가짜뉴스의 유통에 대하여 Hopp, Ferrucci & Vargo (2020) 또한 가짜뉴스가 주류 언론이 전통적으로 생산한 지식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며 사회적 신뢰와 주류 뉴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사회불신은 비정상적 정보의 유통, 나아가 국가정책과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 사회적 불신으로 인해 받아들여지게 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고 마스크 착용, 백신 예방접종 거부 등 국가의 조치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뉴스의 유통에 있어서 집단의 폐쇄성은 가짜뉴스의 확산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반자본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될 수 있다. 이는 가짜뉴스의 유통과 그 영향력과 관련하여 집단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인이 가진 사회적 불신과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공유행위가 공중의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에서 친밀하며 폐쇄적인 연결망으로서 내집단에 대한 신뢰가 이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신뢰와 불신, 예방행동

신뢰는 행위자의 신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Delhey & Newton, 2005). 신뢰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인으로 사회적 협력의 기반이며 사회질서의 토대로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꾸준히 연구되

어왔다. 특히, 정치와 사회경제적 질서의 변화, 경제 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연구되어왔다(Kupreychenko, 2013). 신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회자본 연구들은 신뢰를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로 구분하고, 사회적 신뢰가 가족 등 내집단과 불특정 타인을 포함한 외집단에 대한 믿음이라면, 제도적 신뢰는 정부 등 사회의 공식적 제도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Fukuyama, 1995; Uslaner, 2002). 이 두 가지 신뢰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연구되었는데, Pitlik & Kouba (2015)는 일반적으로 타인을 불신하는 개인은 정부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결속을 통해 공동체의 협력을 끌어내는 사회자본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구성원간의 협력과 공감, 관용 등 타인과의 관계와 경험에서 발생한다. 즉, 사회신뢰는 다양한 차원의 인간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타적이고 협력이며 주도적인 태도와 행동을 양산하게 된다(Fukuyama, 1995). 선행연구에서 사회신뢰는 공중의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협력, 참여를 증진시킨다고 연구되어왔다(Chuang et al., 2015; Scheufele & Shah, 2000; Rhee, J., Kim, E. M. & Moon, T. J., 2005).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공중의 질병에 대한 대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는데, Chuang et al (2015)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인관계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으로서 건강행위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위험상황에서 공중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Lovari, 2020; Roozenbeek et

al., 2020; Vinck et al., 2019). 사회적 신뢰는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사회신뢰가 낮을 경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가 낮아지고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이 왜곡되거나 단절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상승하며 협력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하락하게 된다(Cha & Yoo, 2019). Simmel(2004)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뢰가 없다면 즉 불신이 만연하게 되면 사회 그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코로나 19와 같은 위험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는 위험에 대한 공중의 과장되고 지나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Diotaiuti et al.(2021)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신뢰와 정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전염병 예방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Diers-Lawson et al. (2021)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한국의 코로나 예방행동의 참여가 정부신뢰가 낮은 베트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 신뢰가 높으면 전염병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는 공중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신뢰하게 함으로서 성공적인 공중보건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Chiu & Oh, 2015; Lim, Greenwood & Jiang, 2016; Walter, Brooks, Saucier & Suresh, 2020).

2) 가짜뉴스

현대의 정보환경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확장된 생산과 공유의 과정에서 정보들이 넘쳐나며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함께 유통되고 그 진위를 가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Brashers, Goldsmith, & Hsieh, 2002). 그리고 다양한 오정보 중에서 가짜뉴스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구성하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믿음 뿐 아니라 여론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Mustafaraj & Metaxas, 2017). 가짜뉴스는 대중에게 진실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실재처럼 조작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뉴스 기사로서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증된 사실처럼 포장된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다(Allcott & Gentzkow, 2017; Pennycook et al., 2018; 황용석·권오성, 2017). 가짜뉴스의 분별에 대해 맥그루와 동료들(McGrew et al., 2018)은 미국 12개 주에서 80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가짜뉴스가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일반적인 뉴스의 전형을 따르기 때문인데, 가짜뉴스는 최악의 인간 본성에 호소함으로써 오정보를 퍼뜨리고 동시에 진실을 손상시킨다(Callahan, 2017). 또한 오보나 검증되지 않은 소문, 인위적으로 조작된 허위 정보가 뒤엉켜 공적 차원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기 때문에(Larson, 2020) 정책입안자, 기업, 시민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큰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

가짜뉴스의 확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네트워크 환경과의 연관성이다. 이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상이한 관점을 지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동질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유사한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Shu, Bernard, & Liu, 2018).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지는 폭넓은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 동질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구성원들 간 제시된 뉴스의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제시된 가짜뉴스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Pew Research Center, 2014).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만들어 내는 영향이다. 사회신뢰는 약한 사회적 유대, 즉 개인의 확장된 네트워크 내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나타내며 이것은 사회적 통합과 참여, 제도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된다(Helliwell & Putnam 2004; Putnam 2000; Uslaner 2002). 반면, 사회불신은 일상적이고 순응적이고 적응주의적 행동을 마비시키고 고립화, 원자화를 통해 사회자본을 잠식하고 대인관계의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하며 적대적 고정관념, 소문과 편견 등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Sztompka, 1999).

사회에 대한 신뢰나 불신은 가짜뉴스의 공유과도 관련이 있다. Hopp et al. (2020)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짜뉴스 공유가 사회신뢰와 부적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가짜뉴스를 덜 퍼트리며 사회불신이 높을수록 가짜뉴스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Sztompka (1999)는 사회적 불신이 고립화와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루머, 편견, 혐오감을 발생시키며 사회적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 Yu (2020)는 적대적 매체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편향된 사적 집단에서의 교류를 통해 가짜뉴스의 노출과 수용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정치, 사회에 대한 신뢰와 연관된다고 볼 때(Tsfati & Cappella, 2003) 가짜뉴스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인식 구축과 연관되어 수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짜뉴스와 사회불신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위기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심리를 활용해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을 가시화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염병 공포에 편승한 가짜뉴스가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 국가의 방역정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수많은 가짜뉴스가 만들어 졌는데 국내에서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교회 예배 참석자에게 소금물을 뿌려 100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정보를 실제로 따라하여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해외 사례 등은 가짜뉴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가짜뉴스는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공포를 수반하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 결국, 가짜뉴스의 통제 또는 방역 관련 정보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사회 위험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공중의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정보의 교환과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불확실성을 낮추고 전염병 확산을 위한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Choi, Kim, Moon, & Kim, 2015; Diers-Lawson et al., 2021). 그러나 가짜뉴스와 같이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면 정부나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자체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냉소주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공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Larson, 2020).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높이며, 가짜뉴스의 공유는 예방행동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짜뉴스 공유는 사회불신에 의해 강화되며 예방행동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3) 내집단 신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내집단 신뢰는 집단지성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Levy(1997)는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실제적 역량으로

동원되는 지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공동체 속에 개인을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와 집단 지성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참가자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의 집단은 사회 전체가 아닌 개인이 설정한 집단을 의미한다. Tapscott & Williams(2006)는 집단지성을 독립된 참여자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탈 중심화된 선택과 판단으로부터 출현하는 집합적 지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집단지성은 다수의 참여자에 의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제공할 수 있다. Janis(1971)는 오늘날의 집단지성은 집단 사고(Group Thinking)로 변이되고 있으며 집단사고는 다양성이 결여된 집단일수록 확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른 의견이 필요 없다는 확신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은 집단화 된 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이 설정한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성을 추구하다가 집단사고에 빠지는 되면 잘못된 정보, 부족한 정보, 의도적으로 작성된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고립되고 집단정체성이 강할수록 탈개인화되고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크며, 탈개인화는 그룹화 과정 예를 들어 고정 관념화, 사회적 유혹, 그룹생산성, 집단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Spears, 2017). 이와 관련한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오정보 수용에 있어서 집단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 연구이다. 루머와 같은 오정보의 확산은 동질적인 집단에서 더 쉽게 전파되며(DiFonzo & Bordia, 2007) 동질적 집단 내에서 집단적 대화, 상호적 정보공유, 사회적 지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적 결속, 개인적 접촉 및 근접한 관계가 한 개인이 집단내 구성원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영향을 미친다(Oh, Agrawal, & Rao, 2013). 또한 오정보는 정서적 신뢰와 강한 사회적 결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내에 더욱 강하게 공유된다(Festinger, 1957). Yum, & Jeong (2019)의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명성을 관리하는 등의 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관계형성의 동기가 가짜뉴스 공유의 동기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그밖의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 타인에 대한 관심 등 이타적이며 집단적 성향이 구전의 동기이며(Hennig-Thurau, Gwinner, Walsh, & Gremler, 2004), 사회적 유대감, 동료 식별, 집단에 대한 보호와 소속감 등이 사람들이 가십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으로 연구되었다(Boyer O'Leary et al., 2014; Lyons & Hughes,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내집단에서의 정보공유가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동조화 현상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다수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Bond, 2004), 이는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에서 정보의 동조화 폭포 현상(Bikhchandani, Hirshleifer, & Welch, 1992)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불확실성과 사회적 소외를 피하려는 경향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더라도 집단 안에서 합의된 다수의 의견에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Ahn & Lee(2011)는 사회적 규범이나 대다수의 의견 등의 개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동화시키는 사회적

동조가 루머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근, 보수 성향의 노년층 집단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사실이라고 믿는 가짜뉴스들이 공유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심해지고 다른 세대와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표출되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Jung, 2018; Roh., Choi & Min, 2017)는 점은 내집단에서의 집단지성이 내포한 부정적 문제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짜뉴스의 공유에 미치는 방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사회불신과 가짜뉴스 공유의 관계에 미치는 내집단신뢰의 영향력이다. 내집단 신뢰가 높을 경우 폐쇄적인 내집단 내에서 가짜뉴스와 같은 오정보에 노출되고 동조, 공유하는 적극적 수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Ridings, Gefen & Arinze (2006)는 오정보, 루머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가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만큼 강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회적 결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만큼 공유행위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불신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되는데 불확실성 정체성이론(Uncertainty-identity theory)은 사회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확장한 이론으로서 불확실성이 사회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기술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테러, 질병, 전쟁, 경제붕괴와 같은 사회적 불확실성 및 이혼, 이사, 사별, 해고와 같은 개인적 불확실성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촉발되어 이것이 어

떻게 사회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집단 실체성이 강한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불안 감소에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개인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단 실체성이 높은 집단에 소속되어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함으로써 불안을 낮추려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Hogg, 2007).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집회가 제한되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 지지자들의 모임인 태극기 부대의 SNS 단체 대화방에 가짜뉴스가 퍼져나갔으며 정부와 충돌하는 사례들을 통해 위험 상황에서 폐쇄적 집단성이 가져오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유사성, 동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공고화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반대의견의 경험을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동질적인 집단에서의 정보공유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확증 편향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도록 함으로서 집단구성원들은 대안적 선택을 무시하고 구성원들이 불일치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다(Janis, 1971; Whyte, 1989). 따라서 동질적 집단에 대한 신뢰는 사회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야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유 행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불신이 강화되고, 내집단 신뢰가 높을 때 공중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 동기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인 코로나 관련 예방행동의 순응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역할을 하

게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신뢰가 사회불신과 상호작용하여 가짜 뉴스 공유를 높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예방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메커니즘은 내집단 신뢰가 높을수록 더 강화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내집단신뢰(내집단 전체 신뢰, 내집단 구성원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내집단 신뢰(내집단 전체 신뢰, 내집단 구성원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통해 예방행동에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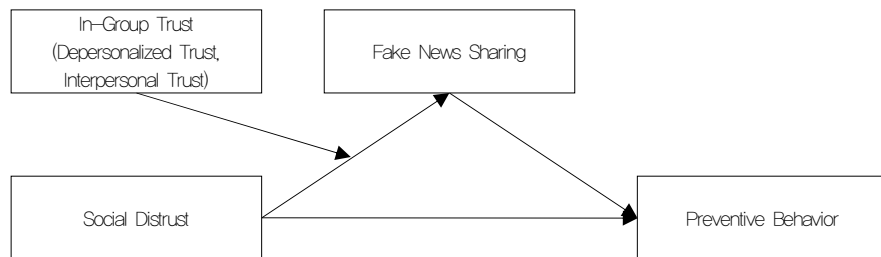


Figure 1.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distrust and preventive behavior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3월 온라인 조사업체의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전 모든 참가자들의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전국 18세 이상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집은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을 균등 할당 표집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 306명(51%) 여자 294명(49%)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120명(20%), 30대 120명(20%), 40대 120명(20%), 50대 120명(20%), 60대 120명(20%)이었다. 학력은 고졸이상 123명(20.5%), 대졸 417명(69.5%), 대학원졸 60명(10%), 정치성향은 보수 28명(4.7%), 중도보수 110명(18.3%), 중도 298명(49.7%), 중도진보 131명(21.8%) 진보 33명(5.5%)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절차

가짜뉴스는 수용자 기만을 목적으로 한 기성

언론의 형태가 특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짜뉴스는 실제 SNS에 자주 노출되었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http://factcheck.snu.ac.kr/>)사이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사를 재구성하여 실험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코로나 19의 예방정책과 관련되어 정부의 예방정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마스크가 건강에 유해하다’, ‘마스크 5부제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한다’, ‘중국과 북한에 마스크를 보내고 있다’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다양한 음모론, 허위사실들이 가짜뉴스의 주제로 SNS에서 많이 유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짜뉴스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소재로 코로나 예방 정책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가상의 가짜뉴스를 온라인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두 명의 전문가(신문기자 1인, 신문방송학과 교수 1인)를 통해 실험 참가자들에게 제시되는 뉴스가 가짜뉴스의 내용적 특성과 형식적 특성²⁾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³⁾을 통해 가짜뉴스에 제대로 부합하고 적절하게 제작됐는지 확인하였다. 실험절차는 먼저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고 이후 참가자들은 실험자극물이 가짜뉴스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뉴스 실험물에 노출되었다. 이후 응답

자들은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에 응답하였다. 설문 종료 전에 참가자들에게 방금 읽은 가짜뉴스는 연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구성한 허위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제 내용과 혼동하는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인 실험 메시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3) 측정변수

(1) 사회불신

사회불신은 사회 전반의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그리스트와 동료들(Siegrist, Gutscher & Earle, 2005)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를 역점수화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은 “기회만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한다.” 등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불신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7$ 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2) 가짜뉴스 공유

가짜뉴스 공유는 자신이 가짜뉴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서 Schultz, Utz, & Göritz (2011)와 Lee & Oh (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문항은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나는 이러한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뉴

2) 내용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사실(fact)이 아닌 오정보로서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보이며, 형식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실제 뉴스의 보도양식(공인된 취재원 뉴스의 서술 및 제시형태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Tan, Lee, & Chee, 2015).

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등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가짜뉴스 공유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 로 나타났다.

(3) 내집단신뢰

내집단 신뢰는 친밀도에 초점을 맞춰서 접촉이 잦은 친밀한 지인들을 내집단으로 정의하고 해당 집단에서 형성되는 긴밀하며 두텁고 특정한 신뢰를 의미한다(Delhey, Newton & Welzel, 2011). 본 연구에서 내집단 신뢰는 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depersionalized trust)와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interpersonal trust)로 구분하였다(Kenworthy & Jones, 2009). 설문문항은 Kenworthy & Jones (2009)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는 개인화되지 않은 집단 전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집단의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모두 믿는다”, “어떤 사람이 이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 믿는다”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집단 내부 구성원에 대한 신뢰로서 “나는 이 집단의 특정 멤버만 믿는다”, “나는 집단 전체를 믿는게 아니라 내 개인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멤버만을 믿는다.”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내집단 신뢰(Cronbach $\alpha = .74$), 하위요인별로 내집단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 .87$), 내집단 구성원 신뢰도 (Cronbach $\alpha = .83$)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4) 예방행동

예방행동은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의 예방행동 실천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예방수칙에 대한 실천의 정도를 의미하며 측정항목은 손씻기,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등 3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예방행동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주요 분석을 하기에 앞서 모든 변수들은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상관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 (2013)가 SPSS 매크로(Preacher, Rucker & Hayes, 2007)를 SPSS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PROCESS(모델 4, 1와 7)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매크로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므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해당 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Preacher, Rucker, & Hayes, 2007). 이 밖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정치성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공변인에 포함하였다³⁾.

3) 선행연구들에서 개인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코로나 19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예, Dryhurst et al., 2020; Honarvar et al., 2020; Lee, Lee & Lee, 2013 등). Dryhurst et al.(2020)는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을 덜 인식하며 위험인식과 예방행동은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arvar et al. (2020)는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에 대한 지식과 행동의도가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Lee, Lee & Lee (2013)

Table 1. Correlation Matric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 | 1 | 2 | 3 | 4 | 5 |
|-------------------------|-------|-------|--------|--------|------|
| 1. Social distrust | | | | | |
| 2. Depersonalized trust | -.01 | | | | |
| 3. Interpersonal trust | .12** | .73** | | | |
| 4. Fake news sharing | .21** | .08 | 1.09** | | |
| 5. Preventive behavior | .06 | .07 | .02 | -.17** | |
| <i>M</i> | 4.67 | 4.39 | 4.35 | 3.11 | 6.50 |
| <i>SD</i> | 1.00 | 1.29 | 1.15 | 1.68 | .78 |

** $p < .01$

Table 2. Mediation Analysis Predicting Fake News Sharing and Preventive Behavior

| | DV: Fake news Shring $R^2 = .11$ $F = 12.62^{***}$ | | | DV: Preventive behavior $R^2 = .08$ $F = 7.23^{***}$ | | |
|-------------------|---|-----|----------|---|-----|----------|
| | β | SE | <i>t</i> | β | SE | <i>t</i> |
| Social distrust | .21 | .04 | 6.54*** | .10 | .04 | 2.44* |
| Fake news sharing | | | | -.19 | .02 | -4.59*** |

*** $p < .001$, * $p < .05$

4. 연구결과

1) 상관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회불신과 내집단 구성원신뢰($r = .12, p < .01$), 내집단 전체신뢰와 내집단 구성원신뢰($r = .73, p < .01$), 사회불신과 가짜뉴스공유의도($r = .25, p < .001$), 내집단 전체신뢰와 가짜뉴스공유의도($r = .21, p < .01$), 내집단 구성원신뢰와 가짜뉴스공유의도($r = 1.09,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짜뉴스공유와 예방행동($r = -.17, p < .01$)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불신과 내집단 전체신뢰(r

$= -.01, p > .05$), 사회불신과 예방행동($r = .06, p > .05$), 내집단 전체신뢰와 예방행동($r = .07, p > .05$), 내집단 구성원신뢰와 예방행동($r = .02, p > .05$)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2) 가짜뉴스 공유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짜뉴스 공유의도의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Model 4)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대한 사회불신의 영향($\beta = .21, p < .001$)과 예방행동에 대한 사회불신의 영향($\beta = .10, p < .05$), 가짜뉴스 공유의도의 영향($\beta = -.19,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짜뉴스 공유의도가 사회불신과 예방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사회불신은 가짜뉴스의 공유를 증가시

는 보수성향이 진보성향을 가진 개인에 비해 위험을 더 높게 인식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정치성향을 통제하였다.

키고 가짜뉴스 공유는 예방행동을 감소시켰다. 반면,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다른 방향을 보이는 억제효과(supression effect)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서 예방행동을 감소시키나 가짜뉴스 공유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신은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통해서 예방

행동으로 이어졌다($B = -.04$, $CI = -.07 \sim -.02$).

3) 내집단 신뢰의 조절효과 검증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내집단 신뢰(내집단 전체 신뢰, 내집단 구성원 신뢰)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매크로(Model 1)을 이용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표준화 계수 산출을 위해 분석에 사용한 변

Table 3. Moderation Analysis Predicting Fake News Sharing.

| DV: Fake news sharing $R^2=11$ $F=9.43^{***}$ | | | |
|--|---------|-----|---------------------|
| | β | SE | t |
| Social distrust | .21 | .04 | 5.33 ^{***} |
| Depersonalized trust | .06 | .04 | 1.59 |
| Social distrust X Depersonalized trust | .12 | .04 | 3.55 ^{***} |
| DV: Fake news sharing $R^2=.11$ $F=9.03^{***}$ | | | |
| | β | SE | t |
| Social distrust | .21 | .04 | 5.15 ^{***} |
| Interpersonal in-group trust | .07 | .04 | 1.75 |
| Social distrust X Interpersonal trust | .09 | .03 | 2.75 ^{**} |

*** $p<.001$, ** $p<.01$

Table 4.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Predicting Fake News Sharing and Preventive Behavior

| | DV:Fake news sharing $R^2=11$ $F=9.43^{***}$ | | | DV: Preventive behavior $R^2=.08$ $F=7.77^{***}$ | | |
|--|---|-----|---------------------|---|--------------------|----------------------|
| | β | SE | t | β | SE | t |
| Social distrust | .21 | .04 | 5.30 ^{***} | .12 | .04 | 3.00 ^{**} |
| Depersonalized trust | .06 | .04 | 1.60 | | | |
| Social distrust X Depersonalized trust | .11 | .04 | 3.37 ^{***} | | | |
| Fake news sharing | | | | -.21 | .04 | -5.06 ^{***} |
| | DV:Fake news sharing $R^2=.13$ $F=11.27^{***}$ | | | DV: Preventive behavior $R^2=.08$ $F=7.23^{***}$ | | |
| | β | SE | t | β | SE | t |
| Social distrust | .23 | .04 | 5.62 ^{***} | .04 | 3.03 ^{**} | |
| Interpersonal trust | .04 | .04 | .12 | | | |
| Social distrust X Interpersonal trust | .11 | .03 | .94 | | | |
| Fake news sharing | | | | -.21 | .04 | -5.06 ^{***} |

*** $p<.001$, ** $p<.01$

수들을 모두 Z점수로 표준화하여 다중중선성의 위험을 줄이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 전체 신뢰의 경우, 사회불신과 내집단 전체 신뢰의 상호작용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2, p < .001$) (<Table 3>참조). 또한 내집단 구성원 신뢰의 경우, 사회불신과 내집단 구성원 신뢰의 상호작용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 p < .01$) (<Table 4>참조). 이에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집단 전체 신뢰,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내집단 신뢰에 따른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표준점수 평균을 0을 기준으로 +1을 높은 수준, -1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회귀방정식에 대입한 결과,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내집단 신뢰(내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 내집단 구성원에 대

한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Figure 2> 참조). 구체적으로 내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높이며($B = .33, t = 6.26, p < .001$)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 t = 1.73, p > .05$). 또한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이($B = .30, t = 5.44, p < .001$)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B = .11, t = 2.25, p < .05$) 보다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4) 내집단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내집단 신뢰(내집단 전체 신뢰, 내집단 구성원 신뢰)에 의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매크로(Model 7)을 이용하여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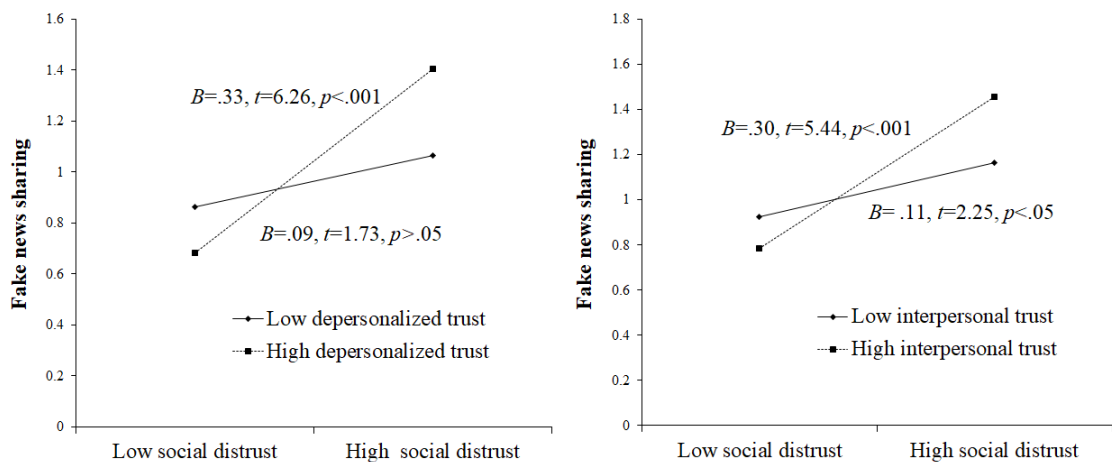


Figure 2. Interaction plots of depersonalized trust and social distrust and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distrust.

Table 5.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at Levels of In-Group Trust

| | Effect | | 95% CI | |
|----------------------------|----------------------------|-------|--------|------|
| | | | | |
| Depersonalized trust | M-1SD | -1.08 | -.03 | .03 |
| | M | .21 | -.07 | -.02 |
| | M+1SD | .99 | -.11 | -.04 |
| | Index of moderated mediate | -.03 | -.06 | -.02 |
| Interpersonal trust | | | | |
| | | | | |
| | M-1SD | -.74 | -.04 | .01 |
| | M | .13 | -.07 | -.02 |
| | M+1SD | .99 | -.10 | -.03 |
| Index of moderated mediate | -.03 | -.05 | -.01 | |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는 Z점수로 표준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집단 신뢰의 수준에 따른 가짜뉴스 공유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집단 전체 신뢰가 낮을 때 사회불신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B = -1.08$, $CI = -.03 \sim .03$), 내집단 전체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의 매개효과($B = .99$, $CI = -.11 \sim -.04$)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내집단 구성원 신뢰가 낮을 때 사회불신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B = -.74$, $CI = -.04 \sim .01$), 내집단 구성원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의 매개효과($B = .99$, $CI = -.10 \sim -.03$)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 지수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Index_{\text{전체신뢰}} = -.03$, $CI = -.06 \sim -.02$; $Index_{\text{구성원신뢰}} = -.03$, $CI = -.05 \sim -.01$) 이와 같은 결과는 내집단 신뢰로서 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와 구성원에 대한 신뢰 모두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높임으로써 예방행동이 낮아지는 부정적 메커니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부정적 메

커니즘이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논의

이 연구는 사회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가짜뉴스 공유와 내집단 신뢰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불신은 직접적으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짜뉴스 공유를 매개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력은 내집단 신뢰(집단전체,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행위를 높이는 결과는 사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되고(Hopp et al., 2020)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코로나 예방행동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사회불신과 예방행동의 관계에서 가짜뉴스 공유가 매개변인으로서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신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의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고(Cha & Yoo, 2019)

적대적 고정관념, 소문과 편견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의 기능을 방해한다(Hopp et al., 2020; Sztompka, 1999)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진짜뉴스를 비교했을 때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이 유포되고 있으며 리트윗되는 비율이 70% 이상, 전파속도는 6배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Vosoughi & Deb Roy 2018), 가짜뉴스가 가지는 시의성과 선정성, 사실성으로 인해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의 보도에 비해 더욱 돋보이게 되어 진짜뉴스보다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며(Kim, 2019), 동질적 집단에서의 의견극화를 통해 더욱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Shu, Sliva, Wang, Tang & Liu, 2017)와 같이 가짜뉴스의 특성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위험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동기가 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방정책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대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은 내집단 신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와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신뢰가 모두 사회에 대한 불신이 가짜뉴스의 공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집단에서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함으

로서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욕구가 높아지며(Hogg, 2007),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정보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집단내에서의 정보의 공유를 높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Bikhchandani, Hirshleifer, & Welch, 1992).

셋째,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통해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내집단 전체 신뢰와 구성원 신뢰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내집단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가짜뉴스 공유를 매개하여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내집단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불신은 가짜뉴스 공유의도를 높임으로서 결과적으로 예방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결속, 개인적 접촉 및 근접한 관계를 가진 강한 사회적 결속에 의해서 유지되는 집단내에 오정보가 더욱 공유된다는 선행연구(DiFonzo & Bordia, 2007; Festinger, 195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내집단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집단자체와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강한 결속과 정서적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안에서 유통되는 오정보 즉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공유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내집단 신뢰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를 불신하더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집단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반대의 견을 경험함으로써 편향되지 않은 정보들을 접하고 오정보를 팩트체크 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내집단에 대한 높은 신뢰는 상대적으로 외부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며 내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반대로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Gambetta, 1988). 즉, 집단의 다양성이 사회적 참여에 아주 다르게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집단 전체 신뢰와 구성원 신뢰가 높은 집단에서 모두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공유를 높임으로서 코로나 관련 예방행동이 감소하는 부정적 메커니즘이 나타나는 반면 내집단 전체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 타자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낮고 연고집단에 대한 내집단 신뢰 즉 폐쇄성이 높을 경우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Kim, 2004)는 점에서 연고집단의 폐쇄적인 연결망, 집단적 호혜성, 신뢰 추구, 사회 전반에 대한 보편적 신뢰의 감소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반 자본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불신과 내집단 신뢰가 사회 반자본으로서 사회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갖는다. 이론적 함의로서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불신이 예방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 공유의 영향 과정을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의 집단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사회불신과 가짜뉴스 공유의 영향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비합리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현상,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공유의도를 높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처라 할 수 있는 예방행동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메커니즘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불신이 사회적 대처방법으로서의 예방행동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 메커니즘이 내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강화된다는 것을 조절된 매개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는데 이론적 함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집단 실체성이 높은 집단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집단을 동일시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Hogg, 2007) 결과적으로 폐쇄적 집단성이 가져오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내집단 전체에 대한 신뢰 혹은 내집단의 여론주도자들, 특정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비합리적 사실의 수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친밀한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가 사회에 대한 비합리적 판단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집단의 집단지성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 배경에는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 타인과의 좋은 관계 형성, 명성 관리, 사회적 상호작용 욕구 등의 사회적 행위를 유발하는 집단 내에서 관계형성의 동기들이 정보의 동조, 전파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Bikhchandani, Hirshleifer, & Welch, 1992; Hennig-Thurau et al., 2004; Yum & Jeong, 2019). 이러한 현상은 집단 양극화로 설명될 수 있다. 집단 양극화는 사회적 구속력이 강하고 비슷한 관심사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이다(Myers & Lamm, 1976). 즉, 응집력 있는 집단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타당성과 관계없이 가짜뉴스와 같은 오정보를 신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집단 안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내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결합되어 수용되며 공유하게 됨을 확인함으로써 가짜뉴스의 수용과정과 이 과정에서 사회불신과 내집단 신뢰가 사회 반 자본으로서 기능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함의는 첫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불신 등이 가짜뉴스 등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관심의 유발은 그 가짜뉴스가 사실이라고 오해하게 하여 공유행동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유행동은 소극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적극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적극적 오정보 수용행동은 국가의 예방정책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팩트 체크가 인포데믹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위한 보다 고도화된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대책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폐쇄적 집단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러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편향되고 양극화되는 폐쇄적 정보환경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다수에 동조하는

동조화 현상이 높고 소통이 단절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표출되는 형상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태도와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세대간, 지역간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공장의 기능을 확대하여 나와 다른 의견들을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이 온라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으로의 정상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리더러시 교육 등 공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회 위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책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Earle, & Cvetkovich, 1995) 정부는 위협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에 대한 공중의 노출을 증가시켜 집단이 가지는 잠재적 전략과 영향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가짜뉴스만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실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위험상황에서 공중의 사회적 불신이 높을 경우 가짜뉴스 뿐 아니라 진짜뉴스에 대한 공유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짜뉴스의 공유는 정책적 대처의 부재나 부족이 뉴스로 인해 알려지게 됨으로서 활발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공유에서 가짜뉴스 뿐 아니라 진짜뉴스의 공유 또한 공중의 사회참여에 부정적 영향력일 나타낼 가

능성이 있다. Lee, Sung & Kim (2019)의 연구에서 가짜뉴스와 진짜뉴스 모두 기존의 지식, 편견과 일치하는 확증편향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회불신이 가짜뉴스 전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수용자의 뉴스 판별에 대한 지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력의 차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짜뉴스 수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이를 반영한 소속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소속된 특정 집단의 성향, 집단의 다양성과 구성원들의 특성, 참여도 등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집단의 특성과 가짜뉴스 수용 과정의 연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부의 예방정책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 관련 가짜뉴스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는 다양한 주제의 가짜뉴스 유형을 제시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가짜뉴스와 집단의 관련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신에서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변인들의 영향력과 이들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이들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hn, J. S., & Lee, W. J. (2011). Effect of social conformity and individuals' information processing tendencies on trust in rumor mess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4), 296-320.
- Allcott, H., &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3-32.
- Bikhchandani, S., Hirshleifer, D., & Welch, I. (1992). A theory of fads, fashion, custom, and cultural change as informational cascad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5), 992-1026.
- Bourgeois, P. (1995). *In search of respect: Selling Crack in El Barri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eary, M. B., Wilson, J. M., & Metiu, A. (2014). Beyond being there: the symbolic role of communication and identification in perceptions of proximity to geographically dispersed colleagues. *MIS Quarterly*, 38(4), 1219-1243.
- Brashers, D. E., Goldsmith, D. J., & Hsieh, E. (2002).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ing in health context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2), 258-271.
- Callahan, M. (2017). *The fake news phenomenon: How it spreads, and how to fight it*. Retrieved from <https://news.northeastern.edu/2017/02/the-fake-news-phenomenon-how-itspreads-and-how-to-fight-it>
- Cha, J., & Yoo, T. (2019). Daejeon citizen's trust: Levels of trust by types and their differences between social group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9(2), 23-41.
- Choi, J. W., Kim, K. H., Moon, J., & Kim, M. S. (2015). Public health crisis response and establishment of a crisis commun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Lessons learned from the MERS outbreak.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8(7), 624-634.
- Chuang, Y. C., Huang, Y. L., Tseng, K. C., Yen, C. H., & Yang, L. H. (2015). Social capital and health-protective behavior intentions in an influenza pandemic. *PloS one*, 10(4), e0122970.
- Choi, J., & Youn, S. M. (2019). Fake News Governance-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6(1), 127-180.
- Delhey, J., & Newton, K.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elhey, J., Newton, K., & Welzel, C.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Diers-Lawson, A., Johnson, S., Clayton, T., Kimoto, R., Tran, B. X., Nguyen, L. H., & Park, K. (2021). Pandemic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evaluation, and self-protective behaviors in Vietnam and the republic of Korea. *Frontiers in Communication*, 6, 1-22.
- DiFonzo, N., & Bordia, P. (2007). Rumors influence: Toward a dynamic social impact theory of rumor. In A. R. Pratkanis (Ed.), *The science of social influence: Advances and future progress* (pp. 271-296).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Diotaiuti, P., Valente, G., Mancone, S., Falese, L., Bellizzi, F., Anastasi, D., ... & Andrade, A. (2021). Perception of risk, self-efficacy and social trust during the diffusion of COVID-19 in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3427.
- Dryhurst, S., Schneider, C. R.,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Van Der Bles, A. M., ... & van der Linden, S. (2020). Risk perceptions of COVID-19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isk Research*, 23(7-8), 994-1006.
- Earle, T. C., & Cvetkovich, G. (1995).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Greenwood Publishing Group.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359(1149), 1435–1446.
- Hennig-Thurau, T., Gwinner, K. P., Walsh, G., & Gremler, D. D. (2004). Electronic word-of-mouth via consumer-opinion platforms: What motivates consumers to articulate themselv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8(1), 38–52.
- Hogg, M. A. (2007). Uncertainty-identity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9–126.
- Honarvar, B., Lankarani, K. B., Kharmandar, A., Shaygani, F., Zahedroozgar, M., Haghghi, M. R. R., ... & Hashemi, S. M. (2020). Knowledge, attitudes, risk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adults toward COVID-19: A population and field-based study from Ira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6), 731–739.
- Hopp, T., Ferrucci, P., & Vargo, C. J. (2020). Why do people share ideologically extreme, false, and misleading content on social media? A self-report and trace data-based analysis of countermedia content dissemination on Facebook and Twitte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6(4), 357–384.
- Hwang, Y., & Kwon, O. (2017).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6(1), 53–101.
- Janis, I. L. (1971). Groupthink. *Psychology Today*, 5(6), 43–46.
- Jang, S. M., Mckeever, B. W., Mckeever, R., & Kim, J. K. (2019). From social media to mainstream news: The information flow of the vaccine-autism controversy in the US, Canada, and the UK. *Health Communication*, 34(1), 110–117.
- Jung, J. H. (2018, 6, 15). Old age, blind faith in fake news on SNS: An explosion of distrust towards the government and society. *Hankookilbo*,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311401039536>
- Kenworthy, J. B., & Jones, J. (2009). The roles of group importance and anxiety in predicting depersonalized ingroup trus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2), 227–239.
- Kim, E., & Yu, H. (2020) A study on th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the exposure and acceptance of fake news. *Broadcasting & Communication*, 21(1) 93–126.
- Kim, M. K. (2019) The effect of social communication behavior depending on news credibility, news involvement, confirmation bia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user's effect of fake news and fact new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52, 5–48.
- Kim, U. (2004) Networks and Anti-networks. *Society and Theory*, 4, 63–94.
- Kupreychenko, A. (2013). Dialectics of Social Trust and Distrust. In N. I. Dryakhlov, A. Ishikawa, A. B. Kupreychenko, M. Sasaki, Z. T. Toshchenko, and V. D. Shadrikov (Eds.), *Trust in Society, Business and Organizatio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Business, Society, Human*, October 30–31, 2013, Moscow.
- Larson, H. J. (2020). Blocking information on COVID-19 can fuel the spread of misinformation. *Nature*, 580(7803), 306–307.
- Lee, E. J., Sung, D. K., & Kim, M. (2019). Mediation effect of confirmation bias and involvement on the social communication behavior: the comparison of real news and fake new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4), 765–784.
- Lee, Y. E., Lee, N. K., & Lee, H. J. (2013). *Korean' risk perception*. Seoul: Nanam.

- Levy, P. (1994). *Collective intelligence*. Arizona: Basic Books.
- Lim, J. S., Greenwood, C. A., & Jiang, H. (2016). The situational public engagement model in a municipal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haring, and the use of organizational and social media. *Journal of Public Affairs, 16*(3), 231–244.
- Lovari, A. (2020). Spreading (dis) trust: Covid-19 misinformation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n Italy. *Media and Communication, 8*(2), 458–461.
- Lyons, M. T., & Hughes, S. (2015). Malicious mouths? The Dark Triad and motivations for gossip.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8*, 1–4.
- Myers, D. G., & Lamm, H. (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4), 602–627.
- McGrew, S., Breakstone, J., Ortega, T., Smith, M., & Wineburg, S. (2018). Can students evaluate online sources? Learning from assessments of civic online reasoning.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6*(2), 165–193.
- Mustafaraj, E., & Metaxas, P. T. (2017) *The fake news spreading plague: Was it preventable?* Cornell University Library.
- Oh, O., Agrawal, M., & Rao, H. R. (2013). Community intelligence and social media services: A rumor theoretic analysis of tweets during social crises. *MIS Quarterly, 37*(2), 407–426.
- Pennycook, G., Cannon, T., & Rand, D. G. (2018). Prior exposure increases perceived accuracy of fake news but has no effect on entirely implausible state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7*(12), 1865–1880.
- Pew Research Center (2014). *Political polarization & media habits: From Fox news to facebook, how liberals and conservatives keep up with politics*.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m.org/files/2014/10/Political-Polarization-and-Media-Habits-FINAL-REPORT-7-27-15.pdf>
- Pitlik, H., & Kouba, L. (2015). Does social distrust always lead to a stronger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Public Choice, 163*(3–4), 355–377.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hee J. W., Kim, E. M., & Moon, T. J. (2005) The communicative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in Korea: Impacts of media uses on trust, civic engagement, and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3), 234–261.
- Ridings, C., Gefen, D., & Arinze, B. (2006). Psychological barriers: Lurker and poster motivation and behavior in online communitie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18*(1), 329–354.
- Roozenbeek, J., Schneider, C. R., Dryhurst, S., Kerr, J., Freeman, A. L., Recchia, G., ... & Van Der Linden, S. (2020). Susceptibility to misinformation about COVID-19 around the world. *Royal Society Open Science, 7*(10), 201199. doi:10.1098/rsos.201199
- Scheufele, D. A., & Shah, D. V. (2000). Personality strength and social capital: The role of dispositional and informational variables in the production of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27*(2), 107–131.
- Schultz, F., Utz, S., & Göritz, A. (2011). Is the medium the message? Perceptions of and reactions to crisis communication via twitter, blogs and traditional media. *Public Relations Review, 37*(1), 20–27.
- Shah, D. V., Holbert, R. L., & Kwak, N. (1999, August). Expanding the “virtuous circle” of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contentment, and interpersonal trus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 and Mass communication, New Orleans, LA.
- Shu, K., Bernard, H. R. & Liu, H. (2018). *Studying fake news via network analysis: Detection and mitigation*. Retrieved from <https://arxiv.org/pdf/1804.10233.pdf>
- Shu, K., Sliva, A., Wang, S., Tang, J., & Liu, H. (2017). Fake news detection on social media: A data mining perspective. *ACM SIGKDD Explorations Newsletter*, 19(1), 22–36.
- Siegrist, M., Gutscher, H., & Earle, T. C. (2005). Perception of risk: The influence of general trust, and general confidence. *Journal of Risk Research*, 8(2), 145–156.
- Simmel, G. (2004). *The philosophy of money*. Routledge.
- Gambetta, D. (1988). Mafia: The price of distrust. In D.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pp.158–175). NY: Basil Balckwell.
- Spears, R. (2017).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edia effects*. Hoboken, NJ: wiley-blackwell
- Roh, S., Choi, J., & Min, Y. (2015). Correlates of fake news effects: Identifying facilitating and constraining factors on fake news exposure and acceptance in the 201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4(4), 99–149.
- Sunstein, C. R. (2011). A case study in group polarization (with warnings for the future). In *Aftermath* (pp. 11–21). New York University Press.
- Sztompka, P.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 A. S., Lee, Ch. J., & Chae, J. (2015). Exposure to health (Mis) information: Lagged effects on young adults' health behaviors and potential pathways. *Journal of Communication*, 65(4), 674–698.
- Tapscott, D., & Williams, A. D. (2006). *Wikinomics*. New York: Portfolio.
- Tsfati, Y., & Cappella, J. N. (2003). Do people watch what they do not trust?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ws media skepticism and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30(5), 504–529.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inck, P., Pham, P. N., Bindu, K. K., Bedford, J., & Nilles, E. J. (2019). Institutional trust and misinformation in the response to the 2018–19 Ebola outbreak in North Kivu, DR Congo: A population-based survey.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19(5), 529–536.
- Vosoughi, S., Roy, D., & Aral, S. (2018).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6380), 1146–1151.
- Walter, N., Brooks, J. J., Saucier, C. J., & Suresh, S. (2020). Evaluating the impact of attempts to correct health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A meta-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1–9. doi:10.1080/10410236.2020.1794553
- Whyte, G. (1989). Groupthink reconsider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40–56.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 82*.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31780>
- Yum, J. Y., & Jeong, S. H. (2018) Research on fake news perception and fact-checking effect: Role of prior-belief consisten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3), 41–80.
- Yum, J. Y., & Jeong, S. H. (2019) Predictors of fake news exposure and sharing: personality, new media literacy, and motiv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1), 7–45.

〈Appendix〉 가짜뉴스 실험물

“마스크 의무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정책이다.”



마스크를 끼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가끔씩은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할 정도다. 이런 증상이 산소 섭취량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다.

마스크를 오래 쓰면 ‘저산소증’에 걸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면역력 저하,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암세포 대사 이론의 창시자인 “오토 워버그” 박사는 ‘저산소증이 암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산소가 충분하면 암세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스크에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이 포함되어, 이를 장기간 호흡하면 폐암으로 이어진다. 마스크의 살균은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를 통해 이루어지면 후유증을 발생시킨다. 세계적인 면역 학자이자 암 전문가인 “아보 도오루” 교수 역시 ‘저산소증이 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악영향을 준다. 심할 경우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학교수업 중에 호흡곤란으로 실신한 학생이 이미 나왔다. 미국의 의사 “수잔 험프리스”는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것은, 물 대신 자신의 소변을 계속 마시는 것만큼 매우 해롭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는 수술실의 외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산소부족의 공급을 위해 별도의 산소를 수술실에서 대량 공급한다. 고밀도 마스크를 이용한 성균관대 의대의 실험에 따르면 산소섭취량을 1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DC와 WHO는 무증상 감염자들은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권고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는 것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Public Response to Social Problems: Testing the Effect of In-group Trust and Fake News Sharing

•Jae-Seon Jeong*

Associate Director, Debiasing and Lay Informatics (DaLI) Lab, University of Oklahom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public response to social problems in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by exploring the relation among the social distrust, fake news sharing and in-group trust that affects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Using a survey of 600 in South Korea, this study tested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using the PROCESS macro. The result showed that the effect of social distrust on preventive behavior was mediated by fake news sharing. Also, social distrust directly improved preventive behaviors but fake news sharing suppressed this effect. Further, we found th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social distrust on preventive behavior through fake news sharing, which depends on the degree of in-group trust.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distrust on preventive behavior was greater for people with high in-group trust than those with low in-group trust. This result is expected to make a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promoting preventive behaviors in the crisis such as Covid-19.

Keywords: Social distrust, In-group trust, Fake news sharing, Preventive behavior

* (jaeseonjeong1@gmail.com)

